

조선대 '세 번이나' 제63회 종별하키 전국대회 우승 목포시청 '세 번 만에'



조선대학교 하키팀이 제63회 종별하키선수권대회 남자대학부 정상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남자대학 결승서 제주대 3-1 제압...올 전국대회 3연패

조선대학교 하키팀이 올들어 전국 대회 3관왕에 올랐다. 21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조선대 하키팀은 최근 강원 썬라이즈 국제하키키경기장에서 열린 제63회 종별하키선수권대회 남자대학부 결승에서 제주대를 3-1로 꺾고 정상을 올렸다.

조선대는 올해 춘계대회, 협회장기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전국대회에서 3차례 정상을 밟았다. 조선대는 무서운 뒷심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1쿼터에 제주대의 역습에 선취점을 허용하며 고전했으나 2쿼터부터 파상공격을 퍼부어 경기를 뒤집었다.

하키팀을 이끌고 있는 안용덕 교수는 감독상, 김중이 감독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김재환은 최우수선수에 선정됐고, 5골을 기록한 김현우는 득점상을 받았다. 앞서 조선대는 '제39회 협회장기 전국 남녀하키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목포시청 하키팀이 제63회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결승서 아산시청에 2-0 신승...올 두 차례 준우승 끝에 우승

목포시청 하키팀이 종별선수권대회 정상을 차지했다. 21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목포시청 하키팀은 최근 강원도 동해시 썬라이즈하키키경기장에서 열린 제63회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 여일반부 결승에서 아산시청을 2-0으로 꺾었다. 목포시청은 전·후반 득점 없

이 비긴 후 페널티 슈트아웃에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로써 목포시청은 지난달 같은 장소에서 열린 2020 KBS배 전국춘계하키키대회 준우승, 제39회 협회장기 전국남녀하키키대회 준우승에 이어 올해 세 개 대회 연속 결승에 진출하는 기록을 작성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1982년 창단한 목포시청 하키팀은 국내 여자하키키 일반부팀 6개 팀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팀이다. 목포시청 하키팀 배상호 감독은 "목포시청 하키팀을 전통의 명가로 재건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강진군 '2020 세계대학역도대회' 취소 확정

FISU 공식 통보

강진군은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주최 측인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하 FISU)으로부터 취소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FISU 사무총장이자 CEO인 에릭 세인 트론드는 "2020년은 코로나19로 스포츠 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대안을 찾기 위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가장 지혜로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올해 FISU가 주최하는 29개 종목의 세계대회 중 3월에 개최됐다가 중도 취소된 스피드스케이팅(네덜란드)을 포함해 모든 대회가 취소됐다고 강진군은 덧붙였다. 강진군은 지난해 4월 대회 유지를 시작

으로 FISU 관계자 협치 실사, 경기시설 등 분야별 실행계획 수립, 대한체육회-대한역도연맹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 17개 단체 500여 명의 군민자원봉사자 모집 등 대회 준비를 해 왔다. 차영수 도의원(집행위원장)은 "코로나 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사태로 국제연맹의 취소 통보를 받았지만 보다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2022년 대회 개최를 유지하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역대 최다 기록인 28개국 443명이 참가 신청한 점과 세계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로 취소된 점 등을 들어 2022년 대회 유치에 들어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초장타 줄이기 해법은 무릎 높이 러프"

현대 프로 골프의 가장 큰 고민은 무한정 늘어나는 선수들 비거리를 줄이는 것이다. 브라이슨 디샬보(미국)는 올해 400야드를 넘어서는 초장타를 휘두른다. 웬만한 파 4홀은 칩샷 거리를 남긴다. 디샬보가 아니라도 정상급 선수는 드라이버 티샷에 웨지샷으로 그린을 공략한다. 이러다가 골프 코스 전장이 8000야드를 넘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골프협회(USGA)와 R&A가 비거리 증가를 더는 방지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한 밝힌 이유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장비 성능 제한이다. 지금도 클럽과 볼의 반발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지만, 더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 골프 대회용 볼을 따로 만들자는 제안도 제법 힘을 얻고 있다. 축구나 야구처럼 대회용 공인구를 따로 지정하면 비거리 증가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논리다. 에니 엘스(남아프리카공화국)는 21일 러프만 길러도 비거리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엘스는 "골프 코스는 더는 길게 만들 필요가 없다. 러프를 무릎 높이로 기르고 페어웨이를 빠르고 단단하게 만들면 공평하다"며 "정말 굉장한 수준의 정확도가 필요하게 된다. 장비 발달과 비거리 증대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연합뉴스

최운정·김세영 조, 코르다 자매에 스크린 골프 완승

LPGA 스킨스 챌린지...상금 3만달러 코로나 성금 기탁

최운정과 김세영이 제시카 코르다, 넬리 코르다 자매(이상 미국)를 상대로 한 스크린 골프 대결에서 이겼다. 20일 대전 골프존 조이마루와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루시의 팍스트로크에서 동시에 진행된 '골프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스킨스 챌린지' 대회에서 최운정-김세영 조는 1, 2라운드 경기를 모두 승리했다. 이날 경기는 최운정과 김세영이 한국시간 밤 8시 30분에 대전에서 경기를 치르고, 코르다 자매는 같은 시간인 오전 7시 30분 미국에서 스크린 골프 대결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올해 5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박인비, 유소연 조가 리디아 고(뉴질랜드), 페르닐라 린드베리(스웨덴) 조를 상대로 역시 스크린 골프 대결을 벌인 바 있다. 매 홀 걸린 상금을 해당 홀의 승자가 가져가는 스킨스 게임 방식으로 열린 이날 경기에서 상금 2만달러가 걸린 1라운드는 최운정, 김세영 조가 1만 2000달러를 획

득해 8000달러의 코르다 자매를 앞섰다. 상금 3만달러를 놓고 다시 맞붙은 2라운드에서도 연장전 끝에 최운정, 김세영이 1만 8900달러를 따내 1만 1100달러를 가져간 코르다 자매를 따돌렸다. 상금은 전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쓰인다. 경기 시작 전에 영상을 통해 선수들은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한국말로 "사랑해"라고 말하는 등 훈훈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경기를 마친 뒤 김세영은 "최근 LPGA 투어 대회가 열리지 않아 제시카와 넬리를 못 본 지 오래됐는데 화면으로나마 인사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의미 있는 자리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운정 역시 "김세영 프로와 한 팀으로 경기해 즐겁게 플레이했다"며 "조금이나마 코로나19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경기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최운정과 김세영이 지난 20일 열린 '골프존 미국여자프로골프 스킨스 챌린지' 대회(스크린 골프)에서 제시카 코르다, 넬리 코르다 자매를 꺾었다. 이날 경기는 대전 골프존 조이마루와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루시의 팍스트로크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사진은 경기 시작 전 포즈를 취한 김세영(왼쪽)과 최운정. /연합뉴스

13년 전 13살 팬 '람'에 사인 스텐슨 "PGA 우승 람, 내 셔츠에 사인 줘?"

사인 좀 해주겠나?"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유러피언투어도 13년 전 스텐슨이 람의 셔츠에 사인을 해주는 장면을 포착한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스텐슨은 PGA 투어에서 6승을 거뒀고 메이저대회인 디오픈까지 제패했다. /연합뉴스

13년 전인 2007년 헨리크 스텐슨(스웨덴)은 스페인 발데리아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프로골프 유러피언투어 볼보 마스터스에 출전했다. 공동 38위로 썩 좋은 성적은 아니었던 스텐슨이지만 13살짜리 꼬마 팬의 셔츠에 사인해준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 흰 셔츠에 스텐슨의 사인을 받아

간 꼬마 이름은 윤람. 스텐슨은 람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면서

세계랭킹 1위가 되자 다투어 축하 인사를 보냈다. 그는 "인상적인 경기였다. 내 셔츠에

LOTTE CINEMA | 중랑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반도
2관	반도, 담위터
3관	반도,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
4관	알라딘
5관	반도
6관	반도
9관	블루 아워, 팬데믹
7관 씨네커를	반도, 비바리움, 에베레스트, 맛있는 녀석들
8관 씨네커를	#살아있다, 소리꾼, 결백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동화음악회
GAC기획공연 - FOCUSV 동화음악회-책으로 웃는 돼지
2020. 8. 25.(화) 11:00, 14: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No. 5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250시리즈 - NO.5
2020. 8. 26.(수)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Prayer, 달의 춤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prayer, 달의 춤
2020. 8. 27.(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